

구병모 소설에 나타나는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와 돌봄의 윤리

- 단편소설집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2015)을 대상으로 -

정연희*

차 례

1. 서론
2.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와 공포의 발견술
3. 무관심 사회의 방어적 이기심과 돌봄의 윤리
4. 연결의 감수성과 난잡한 돌봄의 가능성
5. 현대기술시대의 새로운 윤리

■ 국문 요약

구병모 소설의 이채로움은 재난과 폭력의 세계가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라는 점에서 이해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돌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구병모의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은 특히 생태학적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만하다. 재난과 폭력의 원인이자 그래서 회복해야 할 가치로서 연결의 감각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돌봄의 윤리로 집중되는 타자의 관계윤리는 에코페미니즘의 관심과 맞물린다. 폭력과 잘못된 돌봄은 서로 부추기는 관계로서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를 더욱 강고하

* 대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부교수

게 한다는 것, 방어적 이기심이 팽배해지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폭력의 공모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생각이 구병모의 세계 인식에 깔려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구병모의 소설의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돌봄이 부재하는 무관심 사회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것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성의 논리를 깔고 있으며 경쟁적 자기향상의 틀 안에서 추구되는 개인적 주제들을 상정한다. 그럼으로써 무관심한 세상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과 견디기 어려운 집단적 불안을 내장하고 있다. 「파르마코스」, 「식우」, 「당굴손증후군의 내력」, 이런 일련의 소설에서 구사되는 공포의 발견술은 생태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절박한 소설적 과잉진술이라고 간주할 만하다. 이들 소설은 위기가 무반성적으로 가속화되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과소진술로 은폐되는 폭력과 재난을 환상적 상상력으로 과잉진술하는 것에 성공하고 있다.

구병모의 소설에서 공포의 발견이 유일한 첫 걸음이 되는 것은, 돌봄의 행위 속에 갖추어야 할 근본적이고 깊은 마음을 환기한다는 사실이다. 「이물」, 「어디까지를 묻다」, 「당굴손증후군의 내력」은 연결의 감각과 관계 윤리로서 돌봄의 행위를 그려내고 있다. 돌봄의 가능성은 폭력의 세계에서 미약하게 드러나지만 그 계기가 인물들의 내면에서 돌봄의 감각을 강력하게 소생시키고 확장시킨다는 점은 매우 독특한 부분이다. 구병모의 공포의 발견술이 무엇을 부각하고 무엇을 옹호하려는가 하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창」의 오지라퍼 등용과 오지라퍼 논쟁은, 방어적 이기심이 팽배한 무관심한 사회에서 양육과 돌봄의 윤리가 사적 영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 영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병모의 소설은 생태학적 위기 사회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 되고 있다.

주제어: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 무관심 사회, 방어적 이기심, 공포의 발견술, 연결의 감각, 타자의 윤리, 돌봄의 감각

1. 서론

구병모의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¹⁾은 돌봄의 문제를 탐사하는 단편

1) 구병모,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문학과지성사, 2015. 이후 작품 인용은 쪽수만 밝히도록 한다.

소설집이라고 할 만하다. 이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아래에서 초개인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자기안위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경쟁적인 주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부추김 당하는 개인들이라는 점에 그러하다. 특별할 것도 없고 유달리 모자랄 것도 없는 이들 인물은 가족과 공동체와 국가의 적절한 돌봄과 연결되지 못한다. 그럼으로써 돌봄이 개인의 능력과 책임으로 돌아가는 조직적 소외의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는 타자가 되거나 의도하지 않더라도 폭력을 행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소설집의 다양한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일상화된 평범한 폭력으로 나타나고, 도시인들은 누구나 폭력의 주체이자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인물들은 안전과 안락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는 방어적 이기심이 팽배해지고 일상화된 폭력의 재앙이 ‘나에게만은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이른바 자기 것 돌보기의 편집증이 팽배한 사회와 그런 사회에서 생존해야 하는 주체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이 신자유주의의 주체와 타자들을 교차시키며 다각도로 ‘돌봄’의 의미를 묻는다는 점에 집중하여 이를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폭력’과 ‘돌봄’의 모티프는 구병모 소설에서 그리 생소한 제재들이 아니다. 『위저드 베이커리』(2008)를 필두로 하여 『아가미』(2010)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작이라고 할 『네 이웃의 식탁』(2018)과 『단 하나의 문장』(2018)에서도 폭력과 돌봄의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소설은 가정폭력이든 사회폭력이든 일상에 스며있는 다양한 폭력을 파고들고 있는데, 그 폭력에는 생존 논리와 결합하면서 왜곡되거나 방기되는 돌봄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경쟁적 성과주의로 고립과 고독을 자초한 생존 조건이 일차적인 폭력의 조건이 된다면, 방어적 이기심은 돌봄의 왜곡과 상실로 연결되고, 결국 돌봄의 위기는 더 심대한 폭력을 낳는다.

이런 선형적 인과성은 쉽게 말하려니 그렇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폭력은 잘못된 돌봄을 낳고 그로 인한 돌봄의 위기는 폭력이 되는 악순환의 단단한 고리가 된다고 해야 할 터이다. 구병모 소설의 살벌하고 싸늘한 세계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구축되는 측면이 있다. 그의 소설세계는 우리가 서로 취약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는 사회가 아니라 상호의존성을 거부하는 무관심한 신자유주의와 자기 안전을 위한 이기심에 근거한 반생명적 사회에 부합하는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폭력과 돌봄의 모티프는 구병모 소설을 규명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만하다. 가족에서 출발하는 사적 돌봄의 문제에서 공동체와 국가 차원의 돌봄 문제로 시각을 다각화하는 구병모 소설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돌봄’을 바라보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²⁾ 그런데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의 경우 ‘돌보기’ 혹은 ‘돌아보기’의 문제를 제기하는 무관심한 사회(「이창」, 「어디까지를 묻다」)나 비인간 생명체와 교감하는 연결적 자아(「이물」, 「덩굴손증후군의 내력」)는 페미니즘의 ‘돌봄(care)’ 개념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보다는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모성(motherhood)을 긍정하는 에코페미니즘 철학과 관련성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살레가 일찍이 주장하였듯이, 생태학에서 여성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여성이 월경과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미 자연과 공존한다는 감각 속에서 여성의 의식을 닦아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에코페미니즘이 인간중심적인 환경론에 머무는 표층생태학이

2) 김미현, 「201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자기 돌봄’의 윤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63집, 2019, 63-90쪽. 다른 한편으로 안아름의 「현대소설에서 나타난 생태학적 정체성 양상 연구-한강, 김중혁, 구병모의 소설을 중심으로」(『문학과환경』16(4), 2017, 191-222쪽)는 생태학적 정체성으로 구병모의 「덩굴손증후군의 내력」을 분석하는데, 이는 구병모 소설의 생태학적 독법의 가능성과 유의미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된다.

아니라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심층생태학과 친연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인격의 영적 계발을 위해서는 자기 소외의 남자가 자기 안에 본래 있는 남녀양성의 자연적 일체(original androgynous natural unity)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는 “실재의, 살아있는, 경험적인 여성의 억압”뿐만 아니라 “남성 자신의 안에 있는 여성적 측면의 억압”을 풀어내야 한다는 의미³⁾ 동시에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물종간 관계에 대한 윤리적 논의에서 여성 의식이 과도하지 않는 한 특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⁴⁾ 그런 관점에서 공존의 관계 윤리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돌봄의 윤리는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에서 돌봄의 윤리는 인간과 비인간 자연의 연결을 자기 경험 속에서 축적한 여성의 지식과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고⁵⁾ 위계적 대

3) Ariel Kay Salleh, “Deeper than Deep Ecology”, *Environmental Ethics* 6, 1984, pp.340-344.

4) Deborah Slicer, “WRONGS OF PASSAGE”, Edited by Karen J. Warren, *ECOLOGICAL FEMIN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4, p.33. 이와 관련하여 빅토리아 데이비언의 다음 언급을 참조할 만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1)모든 여성이 자연과 연결감각을 느낀다. (2) 여성이 느끼는 연결감각이 모두 건강하다. 이 둘 중 하나를 주장하는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여성간의 중요한 차이를 재인식하지 못하고 여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서 여성의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승배하게 된다.” Victoria Davion, “IS ECOFEMINISM FEMINIST?”, Edited by Karen J. Warren, *Ibid.*, pp.25-26.

5) 에코페미니즘과 심층 생태학은 외적인 변화를 얻기 위하여 내적 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심층 생태학에서 내적 변화의 핵심은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이상 고립되고 편협한 경쟁적 자아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가족과 친구로 보고 마침내 우리의 종족과 서로 일치된 존재로 인식할 때 자아실현은 비로소 시작된다.(Devall, Bill & Sessions, George, *Deep Ecology*, Salt Lake City:Peregrine Smith, 1985, p.67) 그런데 에코페미니즘은 심층 생태학의 ‘서로 일치된 존재’에 대해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 ‘일치’가 위험한 전체주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이유이다. 심층생태학이 ‘확장된 자아(the expanded self)’라는 말로 ‘일치와 합일’을 중요시하는 반면, 에코페미니즘은 ‘중성적 자아(gender-neutral)’의 ‘연결감각(sense of connection)’을 강조한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마티 킬, 「생태여성주의와 심층생태학」,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

립구도를 거스름으로써 동반자 사회를⁶⁾ 지향하기 위한 핵심가치이다. 이는 여성을 자연과 연결시키는 오랜 수사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배제해야 할 열등한 것으로 구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위계적이고 대립적인 이분법의 구도를 전제하지 않는 것이다.⁷⁾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돌봄은 남성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와 생물중심주의를 반성하는 윤리적 감수성과 에너지를 함축하는 근본적인 가치 윤리라고 할 만하다. 보살핌과 길러냄의 원리와 감수성은 규칙과 효용에 기반한 전통적인 윤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⁸⁾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사유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강박과 시장화된 개인의 이기심을 거스른다.

한편 에코페미니즘은 돌봄을 실천과 활동의 영역으로 다루는 페미니즘 입장과도 차이가 난다.⁹⁾ 돌봄은 국가 관리 차원의 사회복지제도나 적절한 대가로 평가되어야 할 노동으로 간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돌봄의 행위가 신자유주의적 시스템 안에 강박되는 순간, 국가는 마치 현금자동인출기처럼 여겨지고 종사자나 이용

렌스타인 편저, 정현경·황혜숙 역,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202-216쪽 참조.

- 6) 리언 아이슬러, 「지구의 여신 전통과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 생태여성주의 선언」,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 편저, 앞의 책, 62쪽. 그에 의하면 가부장제의 진정한 대안은 모계제가 아니다. 지배자 사회의 세계관을 동반자적 사회로 대신하는 것이다.
- 7) 발 플럼우드, 강규한 역,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 『자연, 여성, 환경』, 한신문화사, 2000, 110쪽.
- 8) Karen Warren, "Ecological Feminist Philosophies : An Overview of the Issues", *Ecological Feminist Philosoph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pp.9-10.
- 9) 페미니즘은 돌봄을 "가능한 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바로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의 **활동**"으로 폭넓게 정의하고(조안 C. 트론도,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67쪽), '보편적 돌봄제공자 복지국가'의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성별 대립적 설정을 해체하고 젠더정의를 증진하고자 한다.(낸시 프레이저, 임옥희 역,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2017, 174-192쪽) 이는 에코페미니즘이 모성성을 탈역사화하고 상징화한다고 비판하는 페미니즘 관점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자는 보다 새롭고 보다 심각한 고통에 노출되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별한 경험과 의식이 결핍되어서 초래된 사회 위기는, 돌봄의 행위로 환원하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러니까 생존의 불가피성으로 합리화되는 이기적인 돌봄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폭력의 공포를 경험하는 일에 해당한다. 구병모의 소설 가운데 특히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은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읽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텍스트로 판단된다. 이를 대상으로 하여 무관심한 사회의 폭력과 돌봄의 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먼저,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의 소설에 펼쳐지는 세계의 폭력을 점검할 것이다. 이 폭력의 양상이 반생명적이고 반생태학적인 사회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 폭력이 특히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잘못된 돌봄’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로 구체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공포의 발견술이 무관심한 사회의 폭력을 환기하는 서사적 의장이자 전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병모가 구현하는 연결의 감수성과 그것을 통한 보편적 돌봄의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구병모의 소설을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살피는 일은 무관심한 사회에 대한 문학적 성찰과 응전의 한 양식을 살피는 일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의 상호연결성을 고려하는 생태학적 사유로서 ‘돌아보기’와 ‘들여다보기’에 대한 성찰도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와 공포의 발견술

「파르마코스」는 옛이야기체에 기대고 있지만 이야기 내용은 호모 파베르의 불행한 진화를 깊이 파고드는 소설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재난과 폭

력의 양상이 자연에서 시작되는 것과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사라져버렸다는 점에 그러하다. 이 단편소설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형식과 내용의 착종이다. “옛이야기의 패턴”이 현대 도시의 서사와 중첩됨으로써 서사적 균열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채로운 것인데, 그것이 특히 강력한 윤리적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소설 줄거리의 대개는 이렇다. 마을은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어 황폐해져버렸다. 약간의 비로 겨우 물이 확보되자, 마을 사람의 생존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집마다 하루에 한 두레박의 물을 가져가기로 한다.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 강력한 규제와 극한의 통치이다.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던 아슬아슬한 균형은 수의 자비로 깨져버린다. 그 날의 물 당번인 수가 지친 여행자에게 자기 가족의 몫인 한 두레박의 물에서 절반을 양보한 것이다. 다음번 물 당번인 화자 루에게도 여행자는 물을 청하였다. 루는 허름한 행색의 여행자에게 물주기를 거절하였다. 여행자는 물을 양보한 수에게 꽃과 보물을 토해내게 하였고, 청을 거절한 루에게는 지렁이와 개구리와 온갖 벌레를 토해내게 하였다. 루가 뱉어내는 지렁이와 개구리는 물을 불러왔다. 마을사람들은 충분한 물을 계속 얻기 위해 루를 감금하고 이용하는 한편, 다른 쪽으로는 혐오스러운 루를 다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관개 수로를 확보하고 저수지를 크게 만들어 가뭄을 대비한다. 루는 그녀가 감당해온 배신과 모멸을 마을에 복수와 심판으로 돌려준다. 3박 4일간 물을 내려 마을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자 루의 자기 이야기는 동시에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버린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서사적 과정의 핵심과 서사적 의미는 서사적 균열과 모순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질문과 해답의 실마리는 화자로서 루가 밝혀놓은 “이야기의 패턴”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서사란 본래 금기를 깬 자들이 맞이하는 비극으로 이루어져왔고, 비참

한 상황이 유발하는 카타르시스에 대한 독특한 취향 또는 무시할 바 못 되니 스스로 한번 그 주인공이 되어보겠다 생각하신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습니다만, 당신이 이걸 본땀자 얻을 수 있는 거라곤 경련성 발작과 심장마비가 고작일 겁니다. 이 일에 대해 풍문으로 익히 들은 바 있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으니 괜찮다 하시겠지만, 눈과 귀로 모두 두 개씩이라 하여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의 무게와 충격이 같지 않습니다.(50쪽)

저수지가 되어버린 마을의 내력을 복기하기 전에 먼저 루는 옛이야기의 패턴을 이야기하며 청자에게 경고한다.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서사는 금기를 깬 자들의 비극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이며 둘째는 비극이 유발하는 카타르시스 효력이다. 두 내용은 서사이론의 기본내용 중 하나일 터인데, 정작 비극론은 「파르마코스」의 서사 전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물을 양보한 수나 양보를 거절한 루는 ‘하루에 단 한 번 단 한 두레박’의 물을 길어가야 한다는 금기를 어기지 않았다. 게다가 수와 루는 비극적인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루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곤 경련성 발작과 심장마비가 고작일” 것이라는 경고이다. 독자가 기대하는 비극과 카타르시스는커녕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과 청자가 보게 될 현상이 끔찍한 혐오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결말은, 좀 더 정확하게는 결말의 일부와 소설의 의미는 이렇게 소설의 모두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간주할 만하다. 이 소설이 금기를 어긴 자의 비극적 서사는 아니지만, ‘풀리지 않는 암호 또는 불가해한 신탁’, ‘여행자의 청과 수락/거부의 설정’, ‘신전을 가장한 감옥’ 등 여전히 옛이야기를 환기하는 장치들은 의미의 균열과 모순을 불러일으켜 매끄러운 독서를 방해하고 정체시킴으로써 의문을 갖게 하다. 이런 것이다. 첫째는 선한 수와 악한 루의 대립구도로 설정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권선징악의 윤리적 틀을 밑바탕에 깔고 있으리라는 오인에서 생겨나는 질문이다. 오인에서 생겨나는 서사적 기대와 실제 펼쳐지는 서사 과정의 어긋남이다. 실제 서사 과정은 옛이야기의 패턴과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

이다. 수는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루의 말대로라면 그녀의 행위는 가족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의 갈증을 담보로 하였고 그는 늙어 병든 아버지일 것이라는 점이다. 수의 친절은 생명에 대한 물의 효용성을 따지는 신속하고 무의식적인 계산을 포함한다. 같은 맥락에서 수가 받은 선물은 행운인가 불행인가를 물을 수 있는데, 이 점은 루의 선물과 함께 후술될 것이다. 그 전에 먼저 효용성의 논리를 살피도록 하자. 물을 둘러싼 효용성 논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루의 항변과 변론으로 좀 더 구체화된다.

제게는 이 우물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까지 발을 끌고 오셨을 적에는 우리 마을 풀이 어떤지 보고도 남음이 있었겠지요. 낫선 이에게 이 귀한 물을 나눠주면 일가가 몰살을 당할 텐데 당신 목을 축이자고 우리가 떼죽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보아하니 행색 또한 당장 쓰러지실 것 같은 분에게 이 피 같은 물 한 방울을 수혈 한들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형편이 안 좋은 데에서 도움을 구걸하기 보다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게 옳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남의 갈증을 돌아볼 기력이 남지 않았답니다.(62쪽)

루의 효용론은 매우 합리적으로 계산된 실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남의 갈증을 돌아볼 기력이 남지 않”은 절박한 생존의 위기는 루의 논리에 합리적인 설득력을 더해준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준들 그 물 한잔이 그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에 얼마나 효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물 한잔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피 같은” 한 방울인 데야 낫선 이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며 수의 어리석은 친절은 분노를 살 뿐이다.

효용성의 논리에는 ‘내가 모르는 자’와 ‘내가 아는 자’의 대립, 나아가 낫선 이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대립이 설정되어 있다. 물을 두고 벌인 가족의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생존이 절박해지면 절박해질

수록 공동체와 타자의 대립은 가족과 타자의 대립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 자기 자신과 타자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대립 의식과 안전 민감도는 집단적인 분노와 폭력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 방울의 물이 증축되지 않는 내 몸에서 남을 돌보는 말이 곱게 나간다면 그거야말로 위선”(63쪽)이 되는 이 논리의 세계는, 협력 대신에 경쟁이 우선하고 다른 사람은커녕 자신을 돌보는 것도 힘들어지며 방어적 이기심이 팽배해지는 현대 사회의 알레고리로 간주할 만하다. 이렇게 보면 수와 루의 행위는 효용성의 논리세계에서 부추겨지고 이해되는 행동이라는 점, 곤경에 처한 자를 차마 그냥 두지 못하는 측은지심의 발동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타산이 작동하고 생명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점에서 선악구도의 영역과 전통적인 윤리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동일한 논리의 차원에 놓여 있다.

논의가 이쯤에 이르면 서사적 비틀림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여행자가 선사한 수의 ‘꽃과 보석’과 루의 ‘지렁이와 개구리 등속’은 선물이 되었는데 재앙이 되었는데. ‘꽃과 보석’은 가뭄의 땅에서는 무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웃 도시에서는 배가 갈린 채 수가 죽게 되는 이기적 탐욕의 대상이 되게 한다. ‘지렁이와 개구리 등속’은 루가 공동체의 혐오 대상이자 폭력 대상이 되게 한다. 마을도 루의 복수로 결국 수몰되기에 이른다. 권선징악의 인과적 서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파르마코스」의 이런 서사골격은 독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서사적 꼬임이나 균열을 자기 증상으로 가진다. 그리고 이런 증상 자체가 가지는 어떤 함의를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활용된 옛이야기의 패턴이 단순한 비유적 장치 이상의 기능을 한다고 볼 만한 것인데, 소설의 모두에 이미 공개되었듯이 생명을 놓고 벌이는 합리적 계산과 경쟁적 욕심이 “경련성 발작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공포와 종말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른바 ‘공포의 발견술’이다.

‘공포의 발견술’은 현대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식우」와 「덩굴손증후군의 내력」 같은 소설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인간과 생명을 위

계적으로 대상화하고 그것의 체계적 시스템화로 탄생한 도시의 생태학적 위기는 도시의 모든 것을 부식시키는 비(「식우」)와 도시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덩굴손(「덩굴손중후군의 내력」)으로 구현되는데, 이렇게 출구 없는 전면적인 재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이 구병모가 소설에서 구현하고 있는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라고 할 수 있겠다. 생태학적 위기가 몇 그루의 나무나 몇 마리의 새에 대한 과장된 걱정일 뿐 문자 그대로 생존의 문제는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는 ‘과소진술’¹⁰⁾이 일종의 신자유주의적 현대도시의 은폐술이라면, 구병모 소설의 ‘공포의 발견’은 넘치지 않는 소설적 ‘과잉진술’이라고 할 만하다.

과소진술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 그보다 오히려 과소진술의 도덕적 모순은 생태위기에 대한 걱정이 현대사회의 패션처럼 소비되거나 생태학적 액션이 신자유주의의 시장 논리 안에서 틈새 산물로 향유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나오미 클라인의 저서 제목 “미래가 불타고 있다”¹¹⁾는 인류의 긴급한 위기에 대한 과소진술을 반성하는 절박한 수사라고 간주할 만하다. 구병모의 소설은 과소진술에 대응되는 절박한 소설 언어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10)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과소진술은 실제적 지식과 상징적 신념 사이에 있는 다음과 같은 분열에 있다. “나는 (상황이 과극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혹은 설마) ... (나는 그걸 믿지 않아. 계속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듯이 행동할 거야.)” 슬라보예 지젝, 김소연·유재희 역,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64-65쪽.

11) 이 제목은 그레타 툰베리에게서 나왔다. 그레타 툰베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희망을 심어 주어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희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극한 공포에 빠지길 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느끼는 공포감을 여러분도 느끼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동에 나서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접 위기에 몰린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겁이 불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나오미 클라인, 『미래가 불타고 있다』, 열린책들, 2021, 21쪽)

3. 무관심 사회의 방어적 이기심과 돌봄의 윤리

지구의 기후 변화와 사회정치문화의 추세는 동일한 차원의 이데올로기를 내면에 깔고 치명적인 상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간과 지구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위기에 대해 할 수 있는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 채굴경제와 착취를 근간으로 한 축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비판해온 그룹 중 하나가 에코페미니즘이다. 살레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의식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경멸해온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목소리가 생태의식과 관련하여 특권을 가지는 것이 옳은데, 특히 여성의 원리는 생태학적 위기에 대하여 근시안적인 도구적 실용주의를 초월하고자 하는 시도가 되는 까닭이다.¹²⁾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중에 ‘돌봄’의 윤리는 배타적이고 정복적인 관계에 제동을 거는 타자윤리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구병모의 소설 세계에는 일상의 삶에 개입하는, 평범하지만 깊은 폭력이 섬뜩하고 살벌하게 펼쳐진다. 특히 그런 폭력의 중심에 돌봄의 부재와 왜곡이라는 ‘잘못된 돌봄’이 만연해 있다는 점이 색다르다. 인간과 비인간 혹은 생물과 무생물을 아무 제약 없이 수탈하고 함부로 대하며 자본가의 자산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합리화하는 논리는 돌봄을 이윤 창출을 위한 노동으로만 취급하는 관행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구병모의 인물들 관점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의 시스템은 저 하나 살기에 팍팍한 현실로 실감되고 시스템 안의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는 날로 강박해진다. 그들이 사는 세계는 “민생고와 생애 의례” 외에 더 이상 다양해질 일이 없이 운신의 폭이 “푸른 규격 방안지에 그려진 한 칸의 모눈을 벗어나지 않”는 생존의 현실이고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은, 죄의식도 죄의식이려니와 하필이면 왜 그때 우리가 이놈(하이:인용자) 옆에

12) Ariel Kay Salleh, Ibid., pp.339-340.

있어서-같은 귀찮음”(「여기 말고 저기, 그래 어찌면 거기」, 13쪽과 26-27쪽)이 강하게 의식되는 현실이다. 구병모 소설의 인물들은 이처럼 자기 삶의 재난에 고립되어 갇혀 있다.

가령 주인공은 돌보아야 할 시누이와 아이와 함께 자신마저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궁지에 몰리거나(「관통」), “덩굴식물이 되어버리는 나약한 사람들보다는 자본의 흐름이 훨씬 정직하고 믿을 만하며 삶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는 진실”(「덩굴손증후군의 내력」, 232쪽)을 알아버리거나, “불가능한 행운과 안녕을 비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식우」, 164쪽)이 되어버리거나, “희망사항은 가파른 속도로 소멸하고 현실이 음주운전 차량처럼”(「이물」, 196쪽) 달려드는 현실에 조금씩 매일 절망하면서,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쳤고 남의 갈증을 돌아볼 기력이 남”(「파르마코스」, 62쪽)이 있지 않다. 이렇게 작가 구병모는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에 무관심 사회의 한 전형을 그려놓고 있다.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의 세계는 “급변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고, “적응하고 변신하는 데 실패하면 그대로 도태”되며, “한 개의 파이에서 한 조각을 얻”(「어디까지를 묻다」, 249쪽)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타이트 되는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사회로 요약된다. 과거에 경제가 종교와 윤리와 사회의 조직들로 이루어진 전체 조직에 끼어들어가 있는 일부였다면, 신자유주의에선 윤리와 사회가 시장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이론이나 경제체제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인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닌다.¹³⁾ 최단 기간에 사회적 유동성은 줄고 빈부 격차는 심해지며 새로운 자유는 적자생존의 공포에 자리를 내어준다. 생존을 위한 ‘한 칸의 모눈’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 남을 되돌아보거나 들여다보거나 돌볼 기력이 남지 않은’ 구병모의 사람들은 안전과 안락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이기적으로 스스로를

13) 파울 페르하에허, 장혜경 역,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반비, 2015, 30쪽.

지키고자 한다. 「식우」는 이러한 방어적 이기심이 생존 논리이자 생존 윤리처럼 합리화되는 세계를 포착하고 있다.

이미 증상자에 가까운 디근이 동행에 부담되지 않을 리 없다. 무엇보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하해와 같은 벼룩과 나눔을 실천한들 바퀴나 엔진 소리로 미루어 이제 이 차도 오래가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나중 가면 피차 난처해질 뿐만 아니라, 그를 가족과 떨어뜨려놓은 마당에는 자기 몸 하나 져지 않도록 감싸기도 여의치 않을 터에 줄곧 그를 건사해야 할 것이며, 그가 가족과 재회하기 전에 과다출혈로 죽기라도 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최악의 경우 시신을 둘러메고 다녀야 할지 모른다. 누군가 한 존재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러한 일이다. 옆자리를 나눈다는 행위는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만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164쪽)

최첨단 시설을 갖춘 G시에 강력한 부식 성질을 가진 비가 60일째 이어지고 있다. 작물피해나 침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에 열 채 이상의 단층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통에 G시의 시민들은 이웃도시로 탈출하기 시작한다. 피난 행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녹여내는 비가 멎지 않는 한 피난 행렬은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던 중 열일곱 살 니은은 같은 반 디근네 가족을 행렬 속에서 발견한다. 니은은 친구 디근을 외면한다. 어떤 한 사람일지라도 돌보고 책임진다는 것은 옆 자리가 “비어 있다고만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아는 까닭이다. 니은으로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자기 안전도 긴급한 마당에 한 생명을 책임짐으로써 생기는 번거로운 부담이다.

왜 ‘열일곱 살’의 니은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이 장면에서 경제적 주체로 자립하지 않는 열일곱 살로 하여금 방어적 이기심에 따른 타산과 책임의 부담을 씬하게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는 이런 소설 문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어른들의 그런-가까운 자란 언제라도 코에 걸었다 귀에 바퀴 걸 수 있는, 나를 빛나게 해줄 장신구

에 지나지 않는다—태도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162쪽) 그러니까 니은은 경쟁과 자기향상의 틀 안에서 관계를 경험하고 구축해온 신자유주의의 주체의 원형을 보여주며, 그의 무관심은 인간과 생명을 대상화하는 구조적 일상에 깊이 스며있어서 살아가다보면 생기는 구조적 수준의 평범한 폭력으로 간주할 만하다. 폭력이 평범성으로 둔감해지면서 그것이 번성할 때 야기되는 재난은 「식우」처럼 전면적이고 강력하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난의 핵심에는 돌봄의 부재, 혹은 돌봄의 왜곡이라는 ‘잘못된 돌봄’이 얽잡혀 있다. 그러니까 구병모는 자신의 소설에서 돌봄의 문제를 다각도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적실한 작품으로 우선 「파르마코스」를 들 수 있다. 책은 광기어린 마을사람들에게서 루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루에게 살 집을 지어주는데, 그것은 이른바 “신전을 가장한 감옥”으로서 돌봄의 외피를 두른 감금과 이용에 불과할 뿐이다. 책의 행동은 분노의 대상이면서 혐오 대상인 루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친절과 연민을 가장한 통제와 분리와 다르지 않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돌보기가 서비스 노동으로 나타나는 돌봄의 왜곡은 우연한 서사적 기획이 아니다. 「이물」의 주인공 양선은 사회복지사이다. 그는 어느 날 늦게 들어간 집에 덩그러니 놓인 “흑색 장모의 아름답디 생물”을 발견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에 손을 뻗으려다 거둔다. 자신의 행위에서 “양은 냄비 같은 자신의 내부에서 식어가던 동정심의 자투리가 만져지는”(185쪽) 까닭이다. 복지사로서 일을 하려면 ‘동정심이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하는데, 아직 동정심이 남아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양선은 사회복지사로서 선후배와 동료들에게 이런 세 가지 충고와 고백을 듣는다. 첫째는 눈물과 공감과 따뜻한 손보다는 과감한 영업력으로

실적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다음해 예산 책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민의 요청에 응하는 친절은 복지사의 직업적 본질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복지사의 정체성을 흐려놓는다는 것이다. 복지사는 심부름센터 직원과 구별되어야 하는 때문이다. 마지막 셋째는 생산과 소비 활동의 매끄러운 자본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잉여존재에게 단지 그들이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지쳤다는 동료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대학시절에서부터 양선이 들었던 ‘서푼짜리 동정심’을 단속하라는 핀잔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도움(복지)의 수혜자를 구제되기 불가능한 극빈자로 경멸하는 낙인을 품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보자면, 위 대목의 충고와 고백이 어느 편에서 있는지 자명해 보인다. 돌봄이 하나의 노동이고 생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그것은 확대 재생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뜨거운 감정으로 시간을 지체하면 노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것은 저조한 실적으로 연결되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주체는 지칠 대로 지쳐버릴 것이다. 다른 특별한 악의가 없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편에서 이윤가치로 환산되는 자본주의적 시간에 충실해야 할 터이다. 그래야 도태되지 않고 무능력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로서 삶을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래야 재정 책정이 증가하여 사회복지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이것을 속물적 직업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동정심은 인간들 사이,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자연 사이에 어떤 위계질서도 없다는 것, 인간은 지구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중 일부일 뿐이라는 것,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에서 생겨나는 관계 윤리적 감정이다. 관계윤리의 감정이나 정서의 이상적인 ‘깊은 상태’란 현실적으로 도달하거나 완벽하게 견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동정과 공감의 생태윤리학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라면, 속물적 직업윤리는 현실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정과 배려의 ‘깊은 마음’이 생태윤리학적 이상의 차원에 있다면 속물적 직업윤리는 현실의 차원에서 이해된다. 속물적 직업윤리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체계적으로 부추겨지고 특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개인의 능력 탓이 되어버린다면 사람이 어느 정도 속됨을 갖는 것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심연에서 가장 단순하며 온전한 것 하나를 발견하고 비로소 되돌아올 여지를 찾”(「어디까지를 묻다」, 270쪽)지 않는다면, 직진일변도의 삶이 어떤 세상을 낳는지는 자명해진다. 그래서 구병모 소설은 이렇게 묻는다. 찬찬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되돌아보며 돌보는 인내와 배려의 성찰적 시간이 없이 속됨의 어쩔 수 없음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것은, “오랜 지배와 구속에 길들여진 짐승처럼 어느새 나를 때리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반응하고 꼬리를 흔들거나 내리개”(268쪽) 되는 노예가 되거나 신자유주의의 괴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4. 연결의 감수성과 난잡한 돌봄의 가능성

보다 현실적인 감각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구병모 소설세계에서 환상장치는 무관심한 사회의 생태적 위기를 부각하는 서사적 의도에 할애된다. 가령 「관통」에서 미온은 정신질환을 앓는 시누이와 갓 낳은 아이와 자기 자신을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돌봄의 조건을 갖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은 이미 미온의 친정에 손을 벌린 적이 있다. 그녀는 들어오지 않는 남편과 더 이상 손을 내밀지 말라고 거부하는 친정과 미온을 불쾌하게 여기는 거리의 시선에 둘러싸여 있다. 도움이나 시선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는 고립과 고독은 그녀로 하여금 불가능한 환상적 탈출을 감행하게 한다. 미온은 폰타나의 그림을 찢고 저 너머의 세계로 들

어가는 것인데, 그 표현 방식은 ‘여기’의 삶을 압도하는 절망감의 깊이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저기’가 어떠한 곳이든 ‘여기’가 아니라면 상관
 없고, ‘저기’가 “자의적인 방문도 이동도 불가능한 데다 공간 자체도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세계”일지라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여기 말고 저기, 그
 래 어찌면 거기」, 37쪽)가 아니면 좋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중요하게 부각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격한 환상적 탈출의 감행은 출구 없는 디스토피아
 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이나 운신이 불가능함을 알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자신의 운신의 불가능성을 완성하는 환상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기하면 「어디까지를 묻다」는 환상적인 탈출보다 ‘여기’의 세계에
 서 가능성으로서 미약한 돌봄과 배려의 온기를 보여준다. 카드사의 고객
 민원실에 근무하는 주인공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거친 욕설과 성적모욕
 을 쏟아내는 고객의 전화로 며칠을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센스 있고
 절도 있게 매뉴얼로 무장한 그녀/들의 가슴 속 응어리를 건드리고 고객민
 원실 전체를 울음바다로 만든 것은 “괜찮으세요?”로 첫마디를 시작하는
 고객의 한 마디 말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동등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니
 무한한 연민 같은 상식이나 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호미로 파헤쳐진 자
 리를 보드라운 흙으로 덮어”주는 손길이 되었던 셈이다. 수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세련된 매뉴얼로 무장한 고객민
 원실의 장면은 ‘잘못된 돌봄’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나아가 무관심
 한 현실이 빚어낼 수 있는 한 편의 복잡한 감정의 드라마를 펼쳐놓고 있
 다. 이 소설에 미약하게 드러나는 이 온기는 “자신의 심연에서 가장 단순
 하며 온전한 것 하나를 발견하고 비로소 되돌아올 여지”를 발견하고 찾는
 가능성으로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닌다. 주인공은 자기 삶의 길목
 에서 난만한 성찰로서 ‘어디까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이물」과 「덩굴손증후군의 내력」에서 연결과 공감의 감
 각을 펼쳐 보이는 대목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물」에서 양선의 시점
 으로 포착되는 정체모를 존재(異物)는, “고요와 침묵”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제 엄숙하고 신성해보이기까지”한다. 이물은 양선에 아직 남아있는 돌 보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운다. 미약한 이물의 일관성 있는 함묵에서 그녀는 어제까지 포기하였거나 실패하였던 생명의 권리와 자격을 숙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보살핌을 받을, 옆에 살아 있어도 되는 존재. 이어서 그것을 방기한 이들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겠다는 보살핌의 윤리를 환기하는 대목에서 절정을 이룬다.

「덩굴손증후군의 내력」은 책임지지 않고 돌보지 않으려는 각 경제에 편입된 인물이 투명인간처럼 취급되다가 덩굴손으로 변하여 온 도시를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서사의 기둥이 되어있다. 덩굴손은 도시를 마비시키는 괴물로 변해버린 약자의 원한과 호소가 될 터인데,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덩굴손을 바라보는 두 시선의 차이이다. 하나는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덩굴로 변화하고 도시를 덮어나가는 현상을 두고 무딘 반응을 보이는 시청여직원이나 덩굴 베어내기를 귀찮은 노동쯤으로 넘겨버리는 P계장이나 덩굴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미화원의 시선이다. 이들 시선은 덩굴손 변신 사건을 더 이상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만성화된 사건으로 여긴다. 도시의 사람들은 곰곰이 들여다보고 찬찬히 되돌아봄으로써 덩굴손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도시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평범한 폭력의 공범자가 되어간다. 또 다른 시선 하나는 청년자원기자단 U의 시선으로서 생태윤리학적 의미에서 시선의 성격이 의미심장하다.

어떤 선명한 연민이나 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U는 무심결에 그리로 손을 들어 올린다. 이어서 닿는 순간 손가락에 감겨 오는 줄기들의 감촉을 느끼지만 그는 잡아채지 않고 그대로 버티어 선다. 그들이 건네고 싶어 하는 말은 기껏해야 한 장짜리 고막의 떨림이 아닌 온 몸을 써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무엇 같다.(240쪽)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U는 찾아도 보이지 않던 P계장이 덩굴손으

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자 “무심결”에 손을 내민다. U의 행동은 어떤 의식적인 타산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감각적인 움직임에 해당한다. ‘손과 손의 마주잡기’로서 온 몸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생태적 감각인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선명한 의식으로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몸과 몸의 감각적 사귀이자 타자를 향한 감각의 열림으로 간주할 만하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전기톱 날이 덩굴손의 줄기를 파고들 때마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가 “실상은 자신의 피부를 타고 몸속까지 전해져 뼈를 울리는 진동과 뒤섞인 마음의 외침”임을 아는 것은 감각적 공감인식으로 언급될 만한 것이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을 자초하는 경쟁적인 개인주의를 거스르는 생태적 자아의 접촉의 연결성으로서 작가 구병모의 윤리적 감각이 도출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잊지 말고 강조해야 할 것은 접촉의 연결성이 동물성 이물(「이물」)이든 식물성 이물(「덩굴손증후군의 내력」)이든 인간과 비인간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 불가해한 대상에게로 확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소설에서 돌봄의 윤리는 가족의 사적 영역이나 혹은 우리와 같거나 우리와 친밀한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보다 오히려 낮은 사람에까지, 그리고 비인간 자연과 불가해한 대상에까지 무한하게 열릴 수 있다는 환대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사적 영역에 한정하는 돌봄이 ‘자기 것 돌보기’의 편집증적 형태를 초래할 수 있다면, 혈족을 고집하지 않는 ‘난잡한 돌봄’¹⁴⁾은 돌보기의 시장화를 거스르고 공동체 삶의 다양한 형태를 찾을 수 있는 가능한 대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14) 더글러스 크림프가 먼저 사용한 단어이다. 여기에서 ‘난잡함’은 ‘가벼운’ 또는 ‘진정성 없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게이들이 서로에 대해 친밀감과 돌봄을 나누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실험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돌봄 선언』에서 크림프의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가져와 사용하였다. 인간과 비인간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돌봄의 필요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역, 니케북스, 2021, 79-86쪽) 친족이 혈연이나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땅과 물과 동물들로까지 확장되는 미국 원주민의 친족개념을 연상해도 좋겠다.

「덩굴손증후군의 내력」의 다음 대목은 그래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U가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의 성격이다. U의 관점으로 말하면 덩굴손(인면수)의 번식은 “이 도시에 그리 변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이고, 도시가 “자본의 흐름을 훨씬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삶의 근간으로 받아들이는 한 덩굴손은 사라질 이유가 없다. 이런 도시의 일상적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한 무관심이 구조적 수준의 평범함으로 일상화되고 결국 도시의 사람들은 공범자일 수 있다는 것이며, 언젠가 도시의 누구든 덩굴손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기에 깔려 있다. 누구든 도시의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변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공범자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구병모 소설의 윤리적 감각임과 동시에 어떤 실천을 생각하게 한다. 실천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다. 짜증 섞인 체념과 무기력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랴도 “꿈틀하지 않으면 여기 아닌 다른 데로 가기로 요원”(「여기 말고 저기, 그래 어찌면 거기」, 44쪽) 하지 않겠는가. 「관통」의 미온이 절망적인 환상탈출을 감행하고 「여기 말고 저기, 그래 어찌면 거기」의 하이가 세상의 끝에서 궁극적인 이탈을 실행했다면, 그것 말고 “우리가 속한 세상의 범위와 한계”에서 어떤 실천을 상상한다면 그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무관심한 사회의 싸움꾼으로 설정된 오지라퍼(「이창」)가 그 중 한 대답에 해당한다.

「이창」의 화자는 열한 살 딸을 둔 주부로서 중산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 어느 날 화자는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서 마주보이는 앞 동 1001호에서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을 포착한다. 서사 전개 과정상 아동학대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또 그것을 확신하기도 어렵다. 아동학대를 확신하는 화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1001호에 들이닥쳐 학대의 흔적을 찾기도 했지만 확실한 흔적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자신이 믿는 진실을 알린 화자는 인터넷 대중에게 비난의 못매를 맞고 신상이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게시물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1001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의 진실을 끝내 밝혀놓지 않는 열린 결말의 서사

이다. 우리는 물을 수 있다. 화자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무례한 오지라퍼인가, 아니면 폭력을 단죄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오지라퍼인가.

무례한 오지라퍼인가 의로운 오지라퍼인가를 물을 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화자 오지라퍼의 싸움꾼 목소리이다.

타인의 분노에 공감하고 그의 광기를 제어하려 해보았자 개입한 사람만이 터진 새우등처럼 만신창이가 되며 보상은커녕 피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인 요즘, 누군가에 대한 동정은 시간과 비용 낭비에 불과하고 정의라곤 깨금발로 서 있을 자리조차 잃은 때 나는 보기 드문 오지라퍼일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아와 질병을 없애고 폭력을 단죄하며 세상을 바꾼 많은 이들이 이를테면 오지라퍼가 아니었던가. 그들은 모두 본인의 불편과 무고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개의치 않으면서 토대를 다지고 씨앗을 뿌려 싹을 띄워온 게 아닌가. 나는 내가 본 것이 한 점 의혹의 여지도 없는 사실이라 믿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을 뿐이다. 나만이 유난스럽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주장할 마음은 없으며, 그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도리라고 믿는다.(103-104쪽)

오지라퍼의 낱말 출현과 시대적 정의와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소설의 모두부분이다. 보다시피 설명하는 목소리에 여러 가지 특징과 태도가 섞여 있다. 정의롭고 진지하며 솔직하기도 하지만, 시니컬하기도 하고 저돌적으로 합리화하며 체제하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런 화자의 목소리는 소설 전체에 걸쳐서 교차되는데 이에 따라 독자는 화자에 공감하기도 하고 화자를 불신하기도 한다. 강한 호소력을 지니기도 하지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화법은 독자로 하여금 발화주체와 거리를 조정과 재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독자 자신의 입장을 재정위하는 윤리적 참여¹⁵⁾로 이끌고 있다.

15) 박진,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이론적 쟁점과 신빙성 판단 과정의 윤리적 효과」,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5집, 2018, 153쪽.

일인칭 화자의 서술이 기본적으로 개인 발화를 통해 독자와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자의 싸움꾼 오지라퍼 설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목소리의 핵심의미를 짚어나가면 이 점은 분명해진다. 첫째, 화자는 이념적으로 숭고하거나 모성 이상¹⁶⁾을 구현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의거하여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세상과 대결하는 평범한 주부이다. 불완전하지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 거칠지만 담대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홈걸스이다. 둘째, 그녀는 “자기 애나 똑바로 돌보는 게 먼저”라는 개인주의 세계와 “만인이 만인의 일에 신경 끌 것”을 지향하는 세계관의 일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물귀신처럼 붙들고 늘어져” 항변하고 있다. 세상의 편견과 선입관에 대해 ‘꿈틀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서 “타인의 불행에 어떤 식으로든 공모자”가 되지 않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간주할 만하다. 셋째, 싸움꾼의 발화가 짙은 호소력을 가지는 것은 그녀가 가진 진정성 때문이다. “선의와 관심이 돌팔매와 비난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더라도” 이 역할을 멈추기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진정성 있는 호소는 돌봄의 관계성이 사적인 영역에 갇히지 않고 ‘나가 모르는 존재’에게도 미칠 수 있는 ‘난잡한 돌봄’의 관계윤리를 견인하고 있다. 「이창」의 오지라퍼 논쟁은, 방어적 이기심이 팽배한 무관심한 사회에서 양육과 돌봄의 윤리가 가족의 사적 영역에서 공동체의 공적 영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16) 모성 이상(maternal ideal)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성에 대한 친숙한 환상이다. 숭고한 희생과 합일의 기쁨과 한없는 친밀감과 무한한 연민 등을 생각하면 되겠다. 모성 이상의 렌즈로만 보면 독립적인 어른의 모성 욕망은 이기적이고 어설플 모성 욕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요컨대 문화적 모성 이상은 돌봄의 양면성(돌봄의 대상에 갖는 혼란스럽고 상충되는 감정)을 부정하고 역설적으로 조장하면서 모성의 일상 경험에 기반한 연대감을 훼손한다. 로지카 파커는 돌봄의 양면성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활력을 주고 마음을 재생한다고 본다. Rozsika Parker, *TORN IN TWO: THE EXPERIENCE OF MATERNAL AMBIVALENCE*, Virago Press, 2005. pp.27-55.

5. 현대기술시대의 새로운 윤리

지금까지 구병모의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나타난 ‘공포의 발견술’과 ‘돌봄의 윤리’를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구병모의 살벌하고 섬뜩한 폭력의 세계가 ‘잘못된 돌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폭력과 잘못된 돌봄은 서로 부추기는 관계로서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를 더욱 강고하게 한다는 것, 방어적 이기심이 팽배해지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폭력의 공모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생각이 구병모의 세계 인식에 깔려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구병모 소설의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돌봄이 부재하는 무관심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 효율성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 경쟁적 자기향상의 틀 안에서 개인적 주체들이 추구된다는 것, 그럼으로써 점점 더 무관심한 세상에서 생존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실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과 견디기 어려운 집단적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 「파르마코스」에 구현되는 세계가 이런 세계를 보여준다. 물을 둘러싼 광기어린 탐욕과 그것으로 촉발되는 폭력적 재앙이 그것인데, 이들 세계를 지탱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효율성의 논리와 생존불안에서 부추겨진 방어적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식우」와 「덩굴손증후군의 내력」으로 이어지는 공포의 발견술은 생태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절박한 소설적 과잉진술이라고 간주할 만하다. 이들 세 소설은 위기가 가속화되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과소진술되고 있는 것을 환상적 상상력으로 과잉진술하는 것에 성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왜 공포의 발견인가’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덕 철학은 우리가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비록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공포인 것만은 아니고 또한 공포의 반대가 필연적으로 최고의 선은 아니며 공포의 발견이 선의 탐구에 있어서 유일한 마지막 수단은 아니지만, 공포는 상당히 유익한 첫 단어임에 틀림 없다.¹⁷⁾

구병모의 소설에서 공포의 발견이 유익한 첫 걸음이 되는 것은, 돌봄의 행위 속에 갖추어야 할 근본적이고 깊은 마음을 환기한다는 사실이다. 「이물」, 「어디까지를 묻다」, 「덩굴손증후군의 내력」 등에서 연결의 감각과 관계 윤리로서 돌봄의 행위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검토했거니와 그것이 폭력의 세계에서 미약하게 드러나지만 오히려 인물들의 내면에서 돌봄의 감각을 강력하게 소생시키고 확장시킨다는 점은 매우 이채로운 부분이다. 구병모의 공포의 발견술이 무엇을 부각하고 무엇을 옹호하려는가 하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창」의 오지라퍼 등용과 오지라퍼 논쟁은, 방어적 이기심이 팽배한 무관심 사회에서 양육과 돌봄의 윤리가 사적 영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 영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병모의 소설은 생태학적 위기 사회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 되고 있다.

또한 구병모 소설은 인간의 힘을 점점 더 기술의 영역에 묶어놓고 인간과 생명을 대상화하는 현대 테크놀로지 사회의 공포를 발견하고, 전통 기술사회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윤리를 제기한다.¹⁸⁾ 전통기술이 인간 외의 세상과 교섭하는 것에 주로 한정되었다면, 현대 테크놀로지는 그 대상을 인간과 생명으로 확장해 놓았다. 현대 테크놀로지 사회에서 기술의 대

17) 한스 요나스,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66-67쪽.

18) 한편, 이네스트라 킹은 여성혐오와 자연혐오의 근원적인 상호연결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지배구조를 완전히 분석할 때 생태학적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코페미니즘의 관심사인 인간 해방과 인간-자연의 관계는 테크놀로지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요구되는 일련의 윤리를 진작시키는 길을 열어 놓는다. 이네스트라 킹, 『페미니즘의 생태학과 생태학이 페미니즘』, 이소영 외 편, 『자연·여성·환경』, 한신문화사, 2000, 69쪽.

상으로서 인간을 제외하려는 전통적인 윤리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윤리로 넘어가야 한다면, 그것이 윤리의 목적 자체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물의 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면,¹⁹⁾ 구병모가 펼쳐 보인 소설 세계는 그 일환으로서 돌봄과 책임의 윤리를 제기하는 하나의 소설적 발언이 된다고 하겠다.

19) 한스 요나스, 앞의 책, 36쪽.

■ 참고 문헌

- 구병모,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문학과지성사, 2015.
- 고영진, 「단편소설의 외연과 전략적 수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5집, 2017, 153-179쪽.
- 김건형, 「가족, 사적 돌봄, 국가의 공모 그 이후」, 『실천문학』, 2019. 봄, 137-153쪽.
- 김미현, 「201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자기 돌봄’의 윤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3집, 2019, 63-90쪽.
- 김혜선, 「생명권력에 나타난 ‘돌봄’의 정치학-200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73집, 우리말글학회, 2017, 367-397쪽.
- 박진,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이론적 쟁점과 신빙성 판단 과정의 윤리적 효과」,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5집, 2018, 135-158쪽.
- 안아름, 「현대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정체성 양상 연구-한강, 김중혁, 구병모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16권4호, 2017, 191-222쪽.
- Eisler, Riane, 「지구의 여신 전통과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 생태여성주의 선언」,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 편저, 정현경·황혜숙 역,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55-70쪽.
- Fraser, Nancy, 임옥희 역, 『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2017, 174-192쪽.
- Jonas, Hans,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66-67쪽.
- Kheel, Marti, 「생태여성주의와 심층생태학」, 아이린 다이아몬드·글로리아 페만 오렌스타인 편저, 정현경·황혜숙 역,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202-216쪽.
- Klein, Naomi, 『미래가 불타고 있다』, 열린책들, 2021, 7-75쪽.
- Plumwood, Val, 강규한 역,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 『자연, 여성, 환경』, 한신문화사, 2000, 110쪽.
- The Care Collective, 정소영 역, 『돌봄 선언』, 니케북스, 2021, 79-86쪽.
- Tronto, Joan C.,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67쪽.
- Verhaeghe, Paul, 장혜경 역,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반비, 2015, 30쪽.

- Ynestra, King, 「페미니즘의 생태학과 생태학이 페미니즘」, 이소영 외 편, 『자연·여성·환경』, 한신문화사, 2000, 69쪽.
- Zizek, Slavoj, 김소연·유재희 역,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64-65쪽.
- Davion, Victoria, “IS ECOFEMINISM FEMINIST?”, Edited by Karen J. Warren, *ECOLOGICAL FEMIN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4, pp.25-26.
- Devall, Bill & Sessions, George,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Slit Lake City:Peregrine Smith, 1985, p.67.
- Parker, Rozsika, *TORN IN TWO:THE EXPERIENCE OF MATERNAL AMBIVALENCE*, Virago Press, 2005, pp.27-55.
- Salleh, Ariel Kay, “Deeper than Deep Ecology”, *Environmental Ethics* 6, 1984, pp.340-344.
- Slicer, Deborah, “WRONGS OF PASSAGE”, Edited by Karen J. Warren, *ECOLOGICAL FEMIN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4, p.33.
- Warren, Karen, “Ecological Feminist Philosophies : An Overview of the Issues”, *Ecological Feminist Philosoph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pp.9-10.

■ Abstract

**The Ecoethical dystopia and the Ethics of
Caring in the Novels of Koo Byeong-Mo :**
Focusing on the “*Hope It's Not Just Me*”(『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Jeong, YeonHee
Daejin Univ.

The uniqueness of Koo Byeong-Mo's novels lies in that the world of disaster and violence is understood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eco-ethical dystopia, and at the same time discovering the value of caring within it. Koo Byeong-mo's “*Hope It's Not Just Me*”(『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is particularly worth illuminat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logical fear discovery. This is true in that it evokes a sense of connection as a cause of disaster and violence and thus a value to be restored.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ethic of others, which is focused on the ethics of caring, is in line with the interest of ecofeminism. The one thought is that Violence and miscarriage are mutually encouraging relationships that further reinforce the ecoethical dystopia, the other is that we can all become complicit in violence in a neoliberal society where defensive selfishness is prevalent.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these thoughts are rooted in Koo's perception of the world.

The ecoethical dystopia of Koo's novel is due to the fact that the world we live in is a society without caring. It lays the logic of

efficiency that exists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individual, or between the individual and society, and presupposes individual subjects pursued within the framework of competitive self-improvement. Thereby, surviving in a world of indifference embeds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and an unbearable collective anxiety. The discovery of fear used in these series of novels, such as 'Pharmakos'('파르마코스'), 'Corrosive rain'('식우'), and 'History of tendril syndrome'('덩굴손증후군의 내력'), deserves to be regarded as an urgent novel overstatement in response to an ecological crisis. These novels succeed in overstating the violence and disaster that we may experience when An unrepentant crisis is accelerated, or that we are experiencing now, but are covered up by understatement.

The fact that the discovery of fear in Koo's novel is a useful first step is the fact that it evokes the fundamental and deep mind that should be equipped in the act of caring. 'Alien substance'('이물'), 'How far'('어디까지를 묻다'), and 'History of tendril syndrome' depict the act of caring as a sense of connection and relational ethics. The possibility of caring is weakly revealed in the world of violence, but the moment powerfully revives and expands the sense of caring within the characters, which is very unique that in the Koo's novel. Koo's art of discovering fear clearly shows the direction of what he is trying to emphasize and what he is keeping. The character of Meddler and the Meddler controversy in 'rear window'('이창') paradoxically reveals that in an indifferent society where defensive selfishness prevails, the ethic of nurture and care does not remain in the private realm, but hopes to spread publicly and spiritually in the community. Through this process, Koo's novels are becoming a response to the ecological

crisis society.

Key words : ecoethical dystopia, indifference society, defensive selfishness,
art of discovering fear, sense of connection, ethics of others,
sense of caring

투고완료일 : 2021. 11. 13. 심사완료일 : 2021. 12. 08. 게재확정일 : 2021. 12. 21.